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한국의 교역구조에 관한 연구

박종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수

A Study on Trade Structure between MERCOSUR and Korea

Chong-Suk Park^a

^aFrancisco College, Daegu Catholic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trade relations centered on the MERCOSUR, a major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reinforce economic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improve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necessary. However, due to limited data access, the study will approach the topic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ERCOSUR with various statistics and literature.

Findings -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hanges in import-export goods between Korea and the MERCOSUR, as trade is focused on specific items. Second, alth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the MERCOSUR is centered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there should be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by countries and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mmercial cooperation. Korea currently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Peru, and Columbia, but not with MERCOSUR. Therefore, Korea must take active measures to sign an TA with MERCOSUR, which has been put on hol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Latin America has the most thriving market when it comes to Free Trade Agreements worldwide. MERCOSUR is a South American Trade Bloc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Asunción in 1991 and Protocol of Ouro Preto in 1994. Its full members are Brazil, Argentina, Uruguay and Paraguay.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MERCOSUR, and corporations that aim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fac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MERCOSUR and its prospects and analyzing the trade relations with Korea, this study will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corporations that wish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Keywords: MERCOSUR, FTA, Latin America, Commercial Cooperation

JEL Classifications: F15, N76, O54

^a First Author, E-mail: favianp@cu.ac.kr

I. 서론

최근 글로벌경제는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성장률이 지난 12년 평균인 2.6%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 GDP성장률도 2024년에는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대외수출은 2023년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부진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금액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수출호조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국가와 한정된 품목으로 제한된 수출입구조를 가진 한국의 입장에서는 교역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시장으로 지난 2019년까지 30년동안 한국은 대중남미 교역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남미지역시장의 진흥확대를 위해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페루, 콜롬비아, 중미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다. 비록 한국이 중남미지역의 다수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무역협정(TA)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담보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한 이유는 남미공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남미지역은 연구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시점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남미지역의 불안한 경제사정에 의해 교역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남미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G. Philippidis and A.I. Sanjuán(2007)은 1980년대 중반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간의 프로토클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남미공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남미공동시장이 범미 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David Pion Berlin(2000)은 남미공동시장의 출범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안보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창출되었음을 주장하였다. Gian Luca Gardini(2011)는 남미공동시장의 역사적 통합의미를 재조명하고 경제통합모델로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운영상의 제도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Roh Jae-Whak(2015)은 한국과 중남미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해 미주지역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ee You-Kyoung and Kim Ari(2019)는 중남미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중남미지역은 시장별로 차이점이 있는 만큼 지역 시장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Yoon Sung-Wook(2019)은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지역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은 개방형 지역주의와 이를 통한 외연확장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공동체모델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Park Chong-Suk(2020)은 태평양동맹(PA)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hoi Keum-Joa(2022)는 중국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교역 및 투자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높지 않은 지역 및 틈새분야발굴을 통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함을 주장하였다. Kim Soon-Sung(2022)은 기업의 소유구조가 중남미지역에 대한 국제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간의 입장차이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의 주요 현황 및 한국과의 국가별 교역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담보상태에 빠져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남미공동시장의 출범배경

중남미지역의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역내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고질적인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지향적인 개혁정책과 무역자유화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남미지역의 다양한 경제통합체 중에서 남미공동시장은 태평양동맹과 함께 중남미지역을 대표하는 양대공동체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출범배경에는 중남미지역국가들의 동질성과 경제정책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Ofelia Stahringer de Caramuti, 1996).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위한 이구아수 선언(IGUAZU Declaration)을 통해 출범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후속작업을 통해 1991년 3월 26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등 4개국은 역내관세의 철폐와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ón)을 체결하였다(Sergio Caballero Santos, 2015). 동 조약의 무역자유화계획에 따라 협상국들은 역내관세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4개국은 남미공동시장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순시온 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인 오푸프레투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를 1994년 12월에 제출하였다. 동 의정서를 통해 남미공동시장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를 완성하면서 1995년 1월부터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은 남미인구의 70%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통합체로 중남미경제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출범이후 남미공동시장은 199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성공적인 신자유주의의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Laura Gómez Mera, 2009).

Table 1. The Development of MERCOSUR

Major Contents	
1985. 11.	Signing the Iguazu Declaration
1988. 11.	The Inte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reaty
1990. 07.	Treaty of Buenos Aires
1991. 03.	Treaty of Asuncion
1991. 12.	Treaty of Brasilia
1994. 12.	Protocol of Ouro Preto
1995. 01.	Entry into force

Source: mercosur.int/en/

남미공동시장은 공동시장이사회(Council of the Common Market)와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장이사회는 남미공동시장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외무장관, 경제장관 및 이에 상응하는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Mahrukh Doctor, 2013). 공동시장그룹은 남미공동시장의 집행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및 국제담당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미공동시장은 총 11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무역과 관련된 정책, 관세, 운송 등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사무국과 공동의회(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사회경제자문포럼(Social and Economic Consultative Forum)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출범이후 정회원국의 추가가입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입장이 대립되는 모습이 있었으나 2012년 7월에 베네수엘라를 정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하지만 브라질을 포함한 3개 회원국은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가입시 약속했던 이행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에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지위를 잠정 중지시켰다.

2.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경제현황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경제규모를 분석해보면 먼저 브라질의 경우 명목 GDP는 1조 8947억 달러로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 대외관계의 기조를 주도하는 국가이지만 경상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다음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명목GDP는 6천 3백억에 해당하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3천억 달러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인 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은 2023년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경제 및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조정협상(Extended Fund Facility)을 통해 긴축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성장은 다소 둔화될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4.5%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의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규모에 비해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중에서 안정적인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루과이의 무역수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우루과이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2. The Size of Economy by Country(2022)

	GDP (billion \$)	Economic Growth Rate (%)	GDP per Capita(\$)	Current Account Rate (billion \$)	Populatio n (million)	Area (km ²)
Brazil	18,947	2.8	8,857	-6,975	206.1	8,516
Paraguay	419	0.2	5,615	-526	6.9	407
Uruguay	712	5.3	20,018	-729	3.5	176
Argentina	6,307	4.0	13,622	-3,395	43.6	2,780

Source: IMF WEO, World Bank WDI (2023).

Ⅲ.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한국의 교역 현황 및 문제점

1. 남미공동시장과 한국의 교역현황

1) 수출입금액 규모

남미공동시장과 한국간의 교역구조에 있어서 수출입금액별로 살펴보면 먼저 2014년 수출규모는 100억 달러대를 기록하였으며 수입규모는 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46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후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19년에는 1천만 달러의 흑자만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교역상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 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는 수출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수출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수출악화는 2023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무역적자는 총 8억 9천만달러였지만 2021년부터는 총 3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한 총 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7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정리해보면 수출은 30억 달러를 나타내었고 수입은 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만 총 2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늘어나면서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남미공동시장과의 교역구조와 달리 수출입규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3. Korea's Exports/Imports by Regional Economic Bloc (Unit: Million USD)

	MERCOSUR		
	Export	Import	Trade Balance
2023(01~07m)	3,026	5,144	-2,118
2022	5,777	10,881	-5,104
2021	5,312	8,640	-3,328
2020	4,438	5,334	-896
2019	5,383	5,373	10
2018	5,693	4,492	1,201
2017	6,602	4,528	2,074
2016	5,475	4,462	1,013
2015	6,949	4,860	2,089
2014	10,156	5,554	4,602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3).

남미공동시장과 한국의 교역현황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브라질과의 교역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교역에 있어서 브라질에 대한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경제규모가 상이하고 브라질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 한국의 브라질 수출은 총 89억 달러이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7억 5천만 달러,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각각 2억 달러대의 수출금액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브라질이 54억 달러, 우루과이가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한 10억 달러대로 증가하였으며 파라과이의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브라질 수출금액은 2020년에 처음으로 40억달러 미만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2022년에는 거의

Table 4. Korea's Exports to MERCOSUR (Unit: Million USD)

	Brazil	Paraguay	Uruguay	Argentina
2023(01~07m)	2,581	61	76	308
2022	4,976	120	152	529
2021	4,666	121	134	391
2020	3,944	87	75	332
2019	4,809	111	121	341
2018	4,884	151	122	536
2017	5,505	146	115	836
2016	4,457	124	100	796
2015	5,495	225	193	1,047
2014	8,922	224	255	756
Total	50,239	1,370	1,343	5,872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3).

50억 달러에 가깝게 회복하였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브라질과 동일하게 2020년에 수출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금액이 높지 않은 것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경제시장이기 때문이다. 남미공동시장과 한국의 수출규모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교역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수입규모를 분석해보면 수출과 유사하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이 3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2014년과 동일하게 40억 달러대로 전환되었다. 2022년에는 총 79억 달러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7월까지 총 41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 미만의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1년부터 10억 달러대로 진입하면서 2022년에는 25억 달러의 수입금액을 나타냈다.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1억 달러대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3억 달러의 수입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경우 2016년에 1억달러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였지만 평균적으로 1억달러 미만의 수입금액을 기록하면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중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5. Korea's Imports to MERCOSUR

(Unit: Million USD)

	Brazil	Paraguay	Uruguay	Argentina
2023(01~07m)	4,145	97	104	797
2022	7,930	78	301	2,572
2021	6,622	57	137	1,824
2020	4,237	84	118	894
2019	4,296	80	134	865
2018	3,908	46	132	406
2017	3,702	99	115	612
2016	3,445	104	81	833
2015	4,059	20	84	699
2014	4,907	73	73	501
Total	47,251	738	1,279	10,003

Source: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23).

2) 수출입 품목별 규모

남미공동시장과 한국의 교역규모는 2020년부터 수출규모보다 수입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역품목별로 수출입규모를 분석해보면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22년 한국의 브라질 수출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이 차지하는 금액이 총 13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에 대한 수출금액과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이 차지하는 금액이 각각 7억 달러대로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에는 5억 달러의 수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2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에 대한 수출금액이 8천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브라질교역과 달리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연료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경우에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파라과이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철도

또는 제도용 이외의 차량,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순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교역구조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품목 중에서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Korea's Exports with MERCOSUR by Key Products (2022) (Unit: Million USD)

	Items	Amount	Trade Balance
Brazil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1,306	1,281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717	693
	Vehicles other than railway	707	700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556	547
	Irons and Steel	279	-124
total		3,565	3,097
Argentina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88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72	72
	Mineral Fuels, Mineral Oils	72	71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67	57
	Irons and Steel	35	35
total		334	322
Paraguay	Vehicles other than railway	77	76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7	6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7	5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6	5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4	3
total		101	95
Uruguay	Vehicles other than railway	42	42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32	31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24	23
	Pharmaceutical Products	11	10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11	10
total		120	116

Source: K-stat (2023).

다음으로 한국이 남미공동시장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분석해보면 브라질의 경우 광물성 연료에 대한 수입비중이 가장 높으며 광, 슬랙, 회,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 곡물 및 육류의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광물성 연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총 2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른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곡물, 동식물성 유지,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 무기화학품 및 광, 슬랙, 회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곡물, 동과 그제품, 각종 조제식료품, 담배 그리고 알루미늄의 순으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대한 수입은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경우 목재펠프, 광, 슬랙, 회, 육류의 순으로 수입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남미공동시장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Korea's Imports with MERCOSUR by Key Products (2022)

(Unit: Million USD)

	Items	Amount	Trade Balance
Brazil	Mineral Fuels, Mineral Oils	2,486	-2,955
	Ores, Slag, Ash	1,494	-1,495
	Residues and Waste from Food Industries	743	-743
	Cereals	697	-697
	Meat, Edible Meat Offal	426	-427
total		5,846	-6,317
Argentina	Cereals	1,899	-1,899
	Animal or Vegetable Fats	273	-274
	Residues and Waste from Food Industries	116	-116
	Inorganic Chemicals	98	-85
	Ores, Slag, Ash	49	-49
total		2,435	-2,423
Paraguay	Cereals	66	-66
	Copper and Articles Thereof	5	-5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3	-3
	Tobacco,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2	-2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1	5
total		77	-71
Uruguay	Pulp of Wood	142	-143
	Ores, Slag, Ash	95	-96
	Meat, Edible Meat Offal	7	-8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f Crustaceans	4	-4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4	-4
total		252	-255

Source: K-stat (2023).

2. 현지투자 및 교역구조상의 문제점

1) 현지투자의 문제점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남미지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총 2천 2백 4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5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 전체지역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남미 전체 투자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총 115억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별로 한국의 투자규모를 분석해보면 2019년에 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 세계주요국가들이 브라질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면서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브라질과는 반대로 2022년에 투자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까지도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라과이의 경우 2021년에 1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감소하고 있으며 우루과이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8. Korea's Investment to MERCOSUR

(Unit: Million USD)

	2019	2020	2021	2022	2023(01~06m)
Brazil	222	272	654	106	500
Argentina	26	32	3	277	140
Paraguay	1	1	19	13	0
Uruguay	0	0	0	0	0
Total	249	305	676	396	640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3).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를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브라질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광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한국과의 교역확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산업내 무역의 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했다(Kim, Seung-Nyeon and Lee, Sang-Jik, 2022).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2021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었다.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금액면에서는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ERCOSUR by Sector

(Unit: Million USD)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razil	Manufacturing	425	195	71	183	245	462	499
	Construction	196	0	289	0	0	1	1
	Wholesale & Retail	67	40	5	1	25	34	0
	Transportation	21	209	0	3	0	51	0
	Finance & Insurance	0	0	15	32	0	0	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	0	2	1	1	0	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0	16	3	1	1	0	0
Argentina	Mining	0	0	314	16	3	3	277
	Manufacturing	0	0	0	9	30	0	0
	Wholesale & Retail	0	1	84	0	0	0	0
Paragua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	0	1	1	1	1	0
	Manufacturing	0	0	0	0	0	8	8
Uruguay	Construction	0	0	0	0	0	11	5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	0	0	0	0	0	0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3).

브라질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에 대한 투자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교역구조 및 통상협력상의 문제점

한국과 남미공동시장의 교역구조를 분석해보면 과거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흐름과 달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출입품목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수출은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은 농산물과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1차 산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은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교역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를 증가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무역에 있어서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적용될 경우 통상분쟁과 무역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대한 남미공동시장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브라질의 경우 평판압연제품(Heavy Plate Steel),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니트릴고무(NBR), 압연실리콘철강(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및 나일론사(Nylon Synthetic Filament Yam) 등 총 5건의 반덤핑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수출입통관 과정은 효율적이지만 주변 중남미지역 국가들에 비해 물류비용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Yoon, Jun-Mo and Yoo, Yeong-Sik, 2018). 아르헨티나는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a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유압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등 총 3건의 반덤핑 수입규제를 시행중이며 이중 디옥틸 프탈레이트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20일간 일시적으로 규제를 중단하고 있다. 과라과이 및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수입규제 품목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특별히 시행중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공동시장의 수입규제조치는 대부분 반덤핑관세에 해당하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총 8건의 규제를 시행 중에 있지만 제한된 품목위주의 교역구조는 수입규제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통상협력의 부족함 점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한국이 중남미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남미공동시장과의 통상협력관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고 현지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IV.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 현지투자정책의 다변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면 지난 2022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총 771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0.4%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 Eximbank, 2022). 2023년 2분기의 해외투자금액 현황을 살펴보다도 전년동기 대비 2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미공동시장 현지투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대상 업종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에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중남미지역의 가장 중요한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경우에도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Arantza Gomez Arana, 2017). 중국의 경우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은 브라질의 철광석과 철강, 칠레의 구리, 아르헨티나의 석유 등 대부분 원자재공급과 관련되어 있다(Petar Kurecic, 2017).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남미공동시장이 출범한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브라질에 진출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에 편중된 투자보다는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굴하여 다변화된 투자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통적인 자원 보유국으로 전세계 3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브라질의 희토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는 희토류를 대표적인 전략육성산업방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브라질의 희토

류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림업 및 어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광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전세계 광업 투자액 순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광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광업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광업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자본재 및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시장의 규모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업종을 다양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광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2021년부터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내수시장보다는 주변시장으로 후회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의 내수시장 규모와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는 긍정적인 투자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파라과이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들은 마킬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한다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농림업 및 어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파라과이와 동일하게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의 외국인투자제도가 비교적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는 외국기업의 투자분야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세금감면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보험업, 광업 및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업종을 다변화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여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시 노사문제와 관료주의는 대표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Lee, You-Kyoung and Kim, Ari, 2019).

2. 교역품목구조의 다양화

한편 교역구조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소비자특성과 산업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경쟁업체의 전략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Yoshimoto Koji and Bae, Il-Hyun, 2019).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전략과 제품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Kim, Bo-Ine, 2022). 최근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반도체 시장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브라질이 반도체수입의 어려움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팬데믹 이후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의 의료기기는 생산기술이 부족하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첨단의료기기와 같은 품목의 수출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품목보다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반영한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출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경우 광섬유케이블의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의 수출이 유망하다고 분석된다.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율이 높은 만큼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산 식품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수출품목과 달리 식품에 대한 내수시장 경쟁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선점과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루과이의 경우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수출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 우루과이의 대외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유무역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통상협력관계의 강화

남미공동시장은 중남미지역에 있어서 남미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다. 남미공동시장은 출범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체 중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Karl Kaltenthaler and Frank O. Mora, 2002). 남미공동시장은 대외교역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을 더욱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Mario E. Carranza, 2006). 그동안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총 21건의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총 10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2004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정상과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를 개시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총 4차례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공동연구를 완료하였다. 양측의 공동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무역협정 체결시 한국의 GDP는 최대 2%, 남미공동시장은 최대 2.74%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9년 7월에는 공동연구의 후속조치로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에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2014년까지 양측간의 협상은 큰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으며 2015년 5월에 무역투자협의체를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국은 2018년에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2021년까지 총 7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양측간 개최된 7차협상에서는 분과별로 상품, 원산지,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측간의 무역협정은 타결되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미공동시장에서 대외협상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Kim, Jin-O et al., 2011).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의 협정체결 시 자국산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지역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고 통상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산업계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Cheong, In-Kyo et al., 2021). 향후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이 아르헨티나와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품의 양허에 관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남미공동시장이 무역협정에 따른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양허대상 품목의 수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미공동시장은 자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국인자본의 유치를 위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협상시 현지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는 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특유의 우위(CSA)와 해외시장으로 이전가능한 기업특유의 우위(FSA)로 구분된다(Lee, Dong-Hyun, 2019).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조한다면 협상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브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원확보와 교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학, 기술, 금융 및 인프라 등 협력관계의 대상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Francisco Dominguez, 2017). 중국은 2000년대부터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이니셔티브를 통해 중남미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Hong,

Sung-Woo at al., 2020). 한국이 칠레를 비롯해 기체결한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적인 확대 및 일시적인 시장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미공동시장은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하는 경제통합체이다.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같이 해외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한 무역정책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Paula Bustos, 2011). 남미공동시장과의 통상협력관계는 단순히 중남미지역과의 외연적인 확대가 아닌 수출활용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글로벌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품목 및 교역상대국의 분석을 통한 무역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경기의 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유망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서 한국이 중남미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시장이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교역과 투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입품목도 제한된 품목위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해 볼 때 양측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소비자특성과 산업정책을 고려한 신규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통합체이자 시장규모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별로 차별화된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품목위주의 수출구조는 수입규제의 위험과 함께 시장선점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미공동시장내에서 한국과 경쟁중인 국가들의 시장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수출품목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현지투자에 있어서도 맞춤형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신규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과 같이 특정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한국의 수요분야에 적합한 투자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수출과 투자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남미공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역관계의 증진을 위해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남미공동시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남미공동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부문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미공동시장과 한국간의 교역구조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남미공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References

- Arana, Arantza Gomez (2017),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s Mercosur*, 114, Available from <http://www.jstor.org/stable/j.ctt1wn0s5p.10>.
- Berlin, David Pion(2000), "Will Soldiers Follow?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Southern Cone,"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42(1), 62.
- Caramuti Ofelia Stahringer de(1996), El Mercosur en el Marco del Regionalismo Abierto, *Del MERCOSUR; Aduana Jurisdiccion Informatica Relaciones Intercomunicatarias*, Ediciones Ciudad Argentina, 38.

- Carranza, Mario E.,(2006), "Clinging Together: Mercosur's Ambitious External Agenda, Its Internal Crisis, and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South Americ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3(5), 810.
- Cheong, In-Kyo., Jung-Ran, Cho., Nam-Kwon, Mun., Chan-Woo, Kim and Gun-Young, Kim (2021), *Analysis of FTA Utilization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KIEP Working Paper No. 21/02), Seoul: KIEP, 168.
- Choi, Keum-Joa (2022), "Latin America's Involvement in the U.S.-China Rivalry in terms of the China-CELAC Forum's Joint Action Plan(2002~2024)", *Korea and World Review*, 4(5), 233.
-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22), 2022 Annual Report, Seoul: Export-Import Bank of Korea, 1.
- Francisco Dominguez (2017), "Latin America and China: What Next for China-Latin American Strategic Relationship?," *Journal of Global Faultlines*, 4(1), 31.
- Gardini, Gian Luca(2011), "MERCOSUR: What You See Is Not(Always) What You Get," *European Law Journal*, 17(5), 16.
- Hong, Sung-Woo., Yeo-Joon, Yoon., Jin-Ho, Kim., Jee-Woon, Rim and Ji-Min, Nam (2020), *An Effect of US-China Rivalry on Latin America and its Implication* (KIEP Working Paper No. 20/01), Seoul: KIEP, 13.
- Karl Kaltenthaler and Mora Frank. O.,(2002), "Explaining Latin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The Case of MERCOSUR,"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1), 92.
- Kim, Bo-Ine (2022), "Analysis of Global Capability and International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Latin American Exporter's KOTRA CGL Test", *Journal of Corporation and Innovation*, 45(2), 47.
- Kim, Jin-O., Ki-Su, Kwon., Hee-Chae, Ko., Mi-Sook, Park and Hyung-Joo, Kim (2011), *The 20 Years of MERCOSUR: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KIEP Working Paper No. 11/30), Seoul: KIEP, 246.
- Kim, Seung-Nyeon and Sang-Jik, Lee (2022),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41(4), 60.
- Kim, Sun-Sung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n Latin America: Evidence from Kore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41(4), 117.
- Laura Gomez Mera (2009), "Domestic Constraints on Regional Cooperation: Explaining Trade Conflict in MERCOSUR,"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6(5), 746.
- Lee, Dong-Hyun (2019),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of Emerging Challeng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Proposed Typology",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16(4), 50.
- Lee, You-Kyoung and Ari, Kim (2019),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Firm Value for Korean Companies to Invest Latin America", *Korea Trade Review*, 44(2), 32.
- Mahrukh Doctor (2013), "Prospects for deepening Mercosur Integration: Economic Asymmetry and Institutional Defici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3), 519.
- Park, Chong-Suk (2020), "A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Pacific Alli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1(4), 314.
- Paula Bustos (2011), "Trade Liberalization, Exports, and Technology Upgrading: Evidence on the Impact of MERCOSUR on Argentinian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1), 339.
- Petar Kurecic (2017), "Small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s in the Multi-Polar Worl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Integration and Patterns of Small States' Vulnerability," *World Review of Political Economy*, 8(3), 333.
- Philippidis, G. and A. I. Sanjuán(2007), "An Analysis of Mercosur's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he World Economy*, 525.
- Roh, Jae-Whak (2015), "The Economic Effects of FTA's with South American Countries and its Indirect Effects to Present American FTA Partners: Using the CGE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1(6), 176.

- Sergio Caballero Santos(2015), "Identity in MERCOSUR: Regionalism and Nationalism," *Global Governance*, 21, 47.
- Yoon, Jun-Mo and Yeong-Sik, Yoo (2018), "A Study on the Economy, Industrial and Trade Environments of Brazil",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415.
- Yoon, Sung-Wook (2019), "A New Trend of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the Case of Pacific Allianc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6(4), 140.
- Yoshimoto Koji and Il-Hyun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ntry into the Latin American Market of Automotive Industry: Focus on Comparison of Korea: Japan Automobile Companies", *Journal of Product Research*, 37(6), 10.